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요셉나눔 재단법인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5년 8월 제 **141**-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유경춘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0432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89(동자동)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요셉의원, 28년 만에 ‘서울역시대’ 열다

서울역 이전 개원 축복미사 및 축복식 거행



‘서울역 요셉의원’ 앞에서 공식 개원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 장면. 왼쪽부터 황원욱 소장, 황용귀 대표, 김태집 대표, 장정호 구의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 정순택 대주교, 군중교구장 서상범 주교, 교구 총대리 구요비 주교, 이문주 제2대 원장신부, 고영초 병원장, 김정식 치과원장, 신완식 제4대 병원장. 사진 아래는 정순택 대주교가 주례한 축복미사.

요셉나눔재단 요셉의원은 개원 38주년을 맞아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요셉의원 7층 경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주례로 ‘서울역 이전 개원 축복미사와 축복식’을 거행했다. 요셉의원은 지난 7월 22일, 28년 만에 영등포 쪽방촌에서 서울역 인근 동자동



으로 이전하고 8월 1일 시범 개원을 거쳐 29일 정식 개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서상범·구요비 주교,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 고영초 병원장, 이문주 신부 등 역대 원장 신부와 재단 이사, 원로 봉사자 등 내외빈 80여 명이 참석했다.

141-1호
주요
소식



1

요셉의원 ‘서울역 시대’ 열다



11

재단/병원 소식



13

유경춘 주교 추모



20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24

국성회 소식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요셉의원 이전 축복미사 강론



“하느님 사랑, ‘서울역 요셉의원’에서 새롭게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요셉의원 개원 38주년을 맞아 서울역 앞 새 보금자리에서 축복 미사와 축복식을 봉헌하게 된 것을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무더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 봉사자 여러분들과 후원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신림동에서 최초의 10년, 그리고 영등포에서 28년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무료로 진료하며 이분들의 자활을 위해 헌신해 온 우리 요셉의원이 지난 7월 22일 이곳 서울역 앞 동자동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서울역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38년 전 ‘가난한 환자들’이야말로 하느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며 의사로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선우경식 선생님의 정신이 이제 서울의 중심부에서 또 다른 사랑의 손길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원은 개원 이래 지금까지 약 77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해 오셨고, 120여 명의 의료 봉사자들과 또 740여 명에 이르는 일반 봉사자들, 그리고 5500명에 이르는 후원자분들의 참여에 힘입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 개원할 당시 주변 사람들이 석 달 안에 문을 닫을 것이라던 요셉의원이 이처럼 점진적인 성장을 이룬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느님 은총의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원은 또한 일찍이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이른바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개원 이래 줄곧 사회에서 외면받으시는 소외된 분들과 함께해오다 보니 외진 곳이나 낙후된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 재개발이 진행될 때 본의 아니게 몇 번씩 밀려가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환자 돌보는 역할 더욱 커질 것”

이번 서울역 앞으로의 이전 역시 요셉의원이 위치했던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이 직접적인 이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8년 전 신림동 재개발로 인해 더 많은 도시 빈민을 찾아 영등포로 옮겨왔듯이, 이번 이전 또한 더 많은 노숙인들과 쪽방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곳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요셉의원에 맡기신 사명을 더 확실히,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곳 서울역 인근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자동 쪽방촌을 비롯해서 노숙자분들과 또 쪽방 주민들이 2천 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의 요지인 이곳은 서울시 외곽의 여러 지역이나 경기도 혹은 다른 지방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힘없고 또 돈 없는 가난한 환자를 돌보는 요셉의원의 역할이 더욱 더 커지고 더 바빠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의 노숙인 환자를 위해 무료 진료 지원 등 여러 도움을 주신 다른 봉사자들과의 긴밀한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 더욱 충실히 수행할 기회”

1부 축복미사에서 정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38년 전 ‘가난한 환자들’이야말로 하느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며 의사로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선우경식 선생님의 정신이 이제 서울의 중심부에서 또 다른 사랑의 손길로 이어지게 됐다”며, “이번에

더 많은 노숙인들과 쪽방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곳을 선택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요셉의원에 맡기신 사명을 더 확실히,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강론 전문 참조)

강론 후, 정 대주교를 비롯한 사제단은 지하 1층에서부터 7층까지 간호실·검사실·치과 진료실 등 병원 주요 시설에 성수를 뿌리며 축복하는 성수 예절을 거행했

협력 관계가 더욱 좋은 결실을 맺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날 인구 전체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셉의원은 거동이 불편하신, 그래서 병원에 오시기 어려운 고령 환자와 또 장애를 가지신 환자들을 위해서 2년 전부터는 방문 진료들 확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역에서도 쪽방이나 고시원 곳곳에서 지내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을 찾아서 하느님의 사랑을 잘 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3년 전 요셉나눔재단법인으로 조직이 확대된 우리 요셉의원은 '서울역 시대'를 맞아 창립자이신 선우경식 선생님이 생전에 관심을 두셨던 동남아라든가 이런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료 지원에도 구체적인 관심을 확대해 나갈 거라고 기대됩니다. 이미 2013년 1월에 필리핀 마닐라 말라본시 빈민 지역에 필리핀 요셉의원을 설립하여 의료 봉사과 아동 급식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위아원(We Are One)이라고 하는 자체 의료봉사팀을 구성해서 올해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 의료 봉사를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봉사팀에는 의대생들과 약대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다수 참여하여 가톨릭 까리따스 정신을 젊은이들에게 확산하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봉사가 오는 2027년 우리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선우 선생의 정신과 뜻 잘 이어가기를

오늘은 전례력으로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입니다. 요셉의원이 1987년 8월 29일 신림동에서 처음 시

작되었던 것처럼, 38년이 지난 오늘 다시금 성 요한 세례자 수난 기념일에 이곳 '서울역 시대'를 새롭게 열리고 합니다. 성 요한 세례자께서 예수님보다 앞서 오셔서 온 생애를 바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요셉의원의 선우경식 선생님께서도 당신의 온 삶을 바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이곳 서울역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요셉의원이 38년 전 선우경식 선생님이 처음 품으셨던 그 정신과 뜻을 잘 이어받아, 앞으로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증거함으로써 이곳 요셉의원을 찾아오는 모든 가난한 환자들의 육신의 치료와 회복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깊이 체험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영혼의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8월 말 요셉의원 이전 축복 미사와 축복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이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주신 홍근표 요셉나눔재단 사무총장 신부님과 고영초 병원장님, 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서울시와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봉사자들과 후원자들, 또 이전 실무를 위해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렇게 요셉의원 개원 38주년 기념 미사와 축복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 '서울역 요셉의원'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주교 정순택 베드로

서울대교구 교구장



다. 이어진 축하식에서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내빈 소개에 이어 ▲건축 리모델링 설계를 맡은 간삼건축의 김태집 대표 ▲시공사인 다음종합건설 황용귀 대표 ▲감리를 담당한 가톨릭건축사사무소 황원옥 소장 수녀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정순택 대주교와 사제단이 미사 참석자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다.



미사 후 정순택 대주교와 서상범 주교, 구요비 주교가 요셉나눔재단 이사진과 자리를 함께 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주교회의 보건사목 담당)는 격려사에서 “주교회의를 대표해 요셉의원의 이전을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사회가 양분화돼 가고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때 가난한 이들에 대한 환대와 치유가 이루어지는 요셉의원이 서울 한복판에 입주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 주교는 이어 “소외되고 아픈 이들 환대하고 치료하는 일은 그분들뿐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큰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요셉의원이 그런 희망과 치유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구요비 총대리 주교는 “선우경식 원장님을 비롯해 많은 봉사자와 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 덕분에 요셉의원이 이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다”며, “예수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잊혀지고 버림받기 쉬운 이들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요셉의원이 이분들을 돌보고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병원 앞에서 개원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

미사 후 병원 건물 앞에서 열린 개원 테이프 커팅식에는 정순택 대주교와 서상범 주교, 구요비 주교, 이문주 신부,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등 사제단과 박희영

정순택 대주교가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와 함께 요셉의원 각 진료 시설을 돌며 성수를 뿌리고 축복하고 있다.



미사 중 격려사를 하는 서상범 주교(왼쪽)와 구요비 주교.

구청장, 고영초 원장·김정식 원장·신완식 원장, 간삼

건축 김태집 대표와 다음종합건설 황용귀 대표, 가톨릭건축사사무소 황원옥 소장 수녀가 참석해 ‘서울역 요셉의원’의 개원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간담회장으로 이동한 내빈들은 모니터를 통해, 요셉의원이 관악구 신림동에서 시작해 영등포를 거쳐 서울역 동자동으로 이전하기까지의 과정과 선우경식 선생의 헌신, 그리고 요셉의원의 활동상을 담은 영상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를 시청했다. 오 시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내민 따뜻한 손길과 치킨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희망의 공간이 바로 요셉의원이었다”며, “요셉의원의 새 출발을 축하드리며, 서울시도 약자와의 동행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영초 병원장은 “서울역 요셉의원에서는 영등포에 비해 두 배 이상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기관 여러분의 도움으로 진료 중심의 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소외된 계층과 약자들이 많이 계신 용산구에 요셉의원이 이전 개원하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 요셉의원과 함께 환자 발길을 비롯해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장정호 구의원도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건강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순택 대주교는 “요셉의원이 도시 재개발로 인해 밀려나는 과정을 겪었지만, 이제 서울역 요셉의원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느님 사랑을 전할 것이라 믿고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마무리 인사말에서 “선우경식 선생님도 노숙인이 많은 서울역 쪽으로 많이 오고 싶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선우 선생님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김수환 추기경님 그리고 재단 이사장이셨던 고 유영춘 주교님 모두 요셉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

개원에 즈음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참된 복음의 실천’ 되기를”

개원 3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은 요셉의원이 영등포에서 서울역으로 이전하여 정식 개원하는 날입니다. 지난 8월 1일에는 환자분들 중 지속적인 약 복용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시범 개원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원은 1987년 신림동에서 시작하여 10년 뒤인 1997년 영등포로 이전해 28년간 이어졌으며, 이제 서울역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셨던 “교회는 야전병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가 치열한 삶의 전쟁터 같은 우리 사회 속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위로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한다는 당부로 여겨집니다. 요셉의원은 바로 이 같은 교회의 본질을 실천하는 공간이며, 이를 통해 ‘참된 교회 중의 교회’로 불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8년 동안 사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사목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왔지만, 지난 3년 반 동안의 요셉의원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복음 안에서의 참 교회의 모습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

료로 헌신하시는 의료진, 봉사자, 그리고 귀한 기부를 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희생은 복음 안에서의 예수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고, 그래서 이를 기회 있을 때마다 또 강의할 때마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 왔습니다.

요셉의원이 신림동, 영등포를 거쳐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많이 머무는 서울역 중심부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된 것은 분명 하느님의 뜻에 따른 것이며, 선종하신 선우경식 선생님께서 요셉의원이 꼭 있어야 할 장소라고 자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도움을 통해 이곳 요셉의원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집’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하느님의 집’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많은 가난한 이들이 위로받고 치유되어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요셉의원의 모든 활동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참된 복음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느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새롭게 열리

기를 소망합니다. +

홍근표

요셉나눔재단 사무총장 신부

“‘주님의 집’ 요셉의원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빕니다”

‘서울역 요셉의원’ 8월 1일 시범 진료 시작

지난 7월 22일 영등포를 떠나 서울역 동자동으로 이전한 본원은 8월 1일 오전 11시 7층 경당에서 30여 명의 직원과 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의 주례로 개원 미사를 봉헌하고, 오후 1시부터 시범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미사는 본원에 미사 지원을 나오는 남해운 신부(예수회)와 나충열 신부(전 교구 빈민사목위원장), 양두승 신부(작은형제회)가 공동 집전했습니다.

홍 사무총장 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우리 요셉의원이 1987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변두리에서 개원한 뒤, 28년간의 ‘영등포 시대’를 거쳐 이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많은 서울 한복판 서울역에 와서 다시 문을 열게 됐다”



고영초 원장이 영등포에서 찾아온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8월 1일 시범 개원에 앞서 7층 경당에서 홍근표 신부 주례로 미사를 올리고 있다.

고 말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강조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요셉의원은 복음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곳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하느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데 함께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홍 사무총장 신부는 이어 “요셉의원을 찾는 많은 가난한 환자들이 이 ‘주님의 집’에서 위로받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8월 1일 첫 진료에 환자 70명 내원

서울역에서의 첫 낮진료는 고영초 원장과 조백기 피부과 봉사의(가톨릭대 명예교수), 전성훈 내과 봉사의가 각각 첫 환자를 맞았다. 이날 낮 진료 환자들은 모두 42명, 저녁 진료 환자는 28명으로, 10명 중 7명 정도는 영등포에서 온 이들이었다.

이풍호 환자(60)는 “오늘 피부과 선생님이 오신다는 진료일정표를 7월 말에 요셉의원에서 알려줘서 영등포에서 전철 타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풍호 환자는 “영등포 요셉의원에서는 진료실과 약국, 검사실이 모두 한 층에 있었는데, 건물이 좁은 서울역 요셉의원은 3개 층으로 나뉘어



시범 개원 첫날, 조백기 피부과 봉사의가 환자의 발을 살펴보고 진료를 하는 모습.

져 있어 옮겨 다니기가 다소 불편하다”며,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께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영등포 요셉의원 단골환자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윤영태 환자(86)도 힘들게 전철을 타고 본원을 찾았다. 그는 “당뇨에 허리도 아프고 힘이 없어, 약도 타고 검사도 받을 겸해서 왔다”며, “보통 일주일 치 약을 탔는데 자주 못 올 것 같아 의사선생님께 한 달 치 약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을 한다는 최경수 환자(56)는 앞쪽 치아가 여러 개 빠져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본원에 들렀다고 했다. “아는 사람이 요셉의원 얘기를 해서 영등포로 찾아갔더니 이리로 이사 갔다고 해서 다시 왔다”며, “다른 곳에도 수급자들에게 치아를 싸게 해주는 곳이 있는데, 그래도 받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무료 틀니를 해주는 요셉의원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질병 양태는 비슷, 방문 진료 활성화 예정

서울역으로 이전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지금 환자들의 거주 분포는 동자동 서울역 부근 환자와 영등포에서 오는 환자가 많고 서울 외곽과 경기도 환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선영 간호팀장은 “영등포 시절에 비해 환자 거주 지역 우선 순위가 바뀌었고, 질병 양태는 노숙인과 쪽방 환자 상당수가 장년층과 노년층이다 보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이 많고, 수



8월 1일 시범 개원 첫날 모습. 왼쪽부터 1층 접수실, 4층 진단검사실, 3층 약제실.

면 장애나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과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정형외과 환자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9월 중순부터는 요셉이웃사랑센터가 중심이 돼 동자동 쪽방촌과 종로구 쪽방촌 및 서울역 주변 고시원 등에 대한 방문사업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안분이 센터장 수녀는 “요셉이웃사랑센터는 방문진료팀과 사회사업팀을 통합해 중증 질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은둔 환자 등 보살핌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와 건강 관리를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쪽방 상담소 등 서울역 지역에서 활동해 왔던 유관 단체와 협의해 환자 진료

중심의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센터는 방문 의사와 방문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진료와 간호, 복약지도를 비롯해 생활상의 불편이나 사회복지 관련 행정 처리에 대한 도움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영초 원장은 “서울역 지역은 쪽방촌 규모도 크고 노숙인 분포도 넓어서 소외받는 가난한 환자를 보살필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며, “요셉의원의 모든 역량을 다해 병원 안팎의 가난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무료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봉사자와 후원자분들의 사랑과 도움에 감사”

쪽방 주민과 작별 인사 후 진료 종료 감사미사



7월 18일 영등포에서의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종료 감사미사를 드리는 모습.

본원이 영등포 쪽방촌에서 마지막 진료를 한 7월 18일. 이날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와 고영초 병원장을 비롯한 비의료팀 직원과 봉사자 20여 명은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가까이 쪽방촌 300여 가구를 돌며 ‘감사의 떡’ 나눔을 하고 작별 인사를 나눴다. 또 그동안 본원에 많은 도움을 준 영등포 소방서와 파출소 등에도 떡 500개를 전달하고 감사를 표했다.

지난 28년 동안 영등포 요셉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옷이나 일부 생필품도 지원받았던 쪽방 주민들은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와 함께 손을 잡고 아쉬움을 달랬다. 홍 사무총장 신부는 평소 요셉의원 매일미사에 참석하던 쪽방 신자들 집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함께 건강과 축복을 비는 기도를 올렸다. 고영초 원장은 본원 방문진료팀이 관심을



갖고 보살펴온 환자들을 찾아 작별 인사를 나누고, 건강관리 유의사항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방문팀 일행이 쪽방촌을 도는 동안 병원에서는 마지막 낮 진료가 진행됐다. 김진성 환자(65)는 “29세 때 당뇨에 걸려 술만 먹으면 저혈당으로 쓰러지곤 했다”며, “당시 요셉의원 선우경식 원장님께 갔더니 혈당이 350이나 되니 절대 술 먹지 말라고 하시며 약을 지어주시고, 나중에는 알코올 병원에도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7년 전에 술과 담배를 끊었다는 그는 “요셉의원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안산에 살지만, 요셉의원이 서울역 앞으로 옮겨도 꾸준히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왼쪽은 고영초 원장이 쪽방 주민과 작별인사를 나누는 모습. 오른쪽은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가 쪽방 신자를 인사차 방문한 장면.

영등포 진료 종료 감사미사 집전

쪽방촌 방문에 이어 오후 5시에는 3층 경당에서 직원과 봉사자, 쪽방 주민, 협력 봉사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



전성훈 봉사가의가 영등포에서 마지막 내과 진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영등포 약제실에서 환자에게 처방약을 건네는 모습.

석한 가운데 ‘영등포 요셉의원 진료 종료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는 홍 사무총장 신부와 황인환 서울대교구 관리국 부국장(당시) 신부, 김다솔 필리핀 요셉의원 원장 신부가 공동 집전했다.

홍 사무총장 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영등포에서 진료한 지 28년 동안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덕분에, 여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후원자분들의 도움과 사랑에 힘입어 많은 환자분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펼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참석자 소감과 인사

이날 종료 감사미사에 참석한 사제와 원로 봉사자, 협력 봉사단체 대표는 본원의 이전에 대해 섭섭함과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서울역 동자동으로 이전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했다. +

▶ **황인환 베네딕토 서울대교구 관리국 부국장(당시)** : 서울대교구



근현대사 안에서 교회의 발전과 축을 같이 하는 단체 중의 한 곳이 바로 요셉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신 선우경식 선생님의 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원에 참여하시는 모든 의료인들과 봉사자들, 환우들이 모두 요셉의원 안에서 성화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 신부** : 오늘 독서 말씀처럼 요셉의



원 공동체가 한강을 건너 서울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 하느님을 찾아 여정을 떠난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영등포를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동안의 역사와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짊어지고 떠나는 여정입니다. 이 새로운 여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홍근표 신부가 쪽방촌 교우 집을 찾아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신완식 전임 원장** : 2008년 4월에 선우경식 원장님이 돌아가신



뒤 당시 가톨릭의료원장이시던 최영식 신부님의 권유로 요셉의원에 와서 처음에는 한쪽 발만 살짝 담그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다 두 발 다 빠져서 16년 동안 해마다 보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데까지 요셉의원에 봉사자로 나올 생각입니다.

▶ **고영초 병원장** : 제가 1987년 요셉의원 개원 한두 달 뒤에 신경외



과 봉사자로 합류해서, 선우 선생님이 급성 뇌경색이 왔을 때 주치의로 봐드리고, 병세를 살피던 중에 위암에 걸리신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날 급성 뇌출혈이 왔을 때 마지막으로 선우 원장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원장으로 온 것도 선우 선생님이 하늘에서 저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림동의 빼그덕대는 좁고 낡은 건물에서 영등포 넓은 곳으로 이사왔다가 이제 다시 영등포 건물보다 좁은 서울역 앞으로 가지만, 기적같은 일들을 내려주셨던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직원 여러분과 봉사자분들과 힘을 합쳐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철규 전 소아과 봉사의** : 40년 동안 소아과의를원을 개업하다 뜻



한 바 있어 요셉의원에 왔더니 선우 선생님이 혼자서 낮에 환자를 보고 계셨어요. 대외 활동을 하면서 너무 바빠 때라 저를 보고 반색을 하며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어려운 노숙자분들을 10년 정도 진료했던 것이 가장 인상에 남고 뜻깊었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시더라도 어려운 노숙인들을 힘껏 도우셔서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김정식 요셉의원 치과원장** : 1987년 요셉의원이 개원할 때 제가 합류한 건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림동에서 1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하다 영등포로 이사온 지 28년만에 서울역으로 이전한다니 섭섭한 마음이 앞서지만, 서울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난하고 그늘진 곳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승남 외과 봉사의(전 서울성모병원장)** : 선우경식 선생님은 제 고등학교 1년 선배이시고, 대학도 선배신데, 선우 선생님에 비해 저는 이른바 '꽃길'만 걸었어요. 선우 선생님이 제게 좀 도와달라고 하실 때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했고, 정년이 되면서 요셉의원에 나오고 또 해외의료봉사도 좀 다녀왔죠. 나이가 들면 내줄 생각도 해야 할 것 같아 젊은 선생님들에게도 봉사 기회를 드려보자는 생각입니다.



▶ **김중승 내과 봉사의** : 저는 학생 때 가톨릭의대 가톨릭학생회에 서 1971년도에 서울 신림동과 난곡동에서 주말 진료를 처음 시작할 때 참여하면서 선우 선생님을 신림동에서 몇 번 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림동에서 요셉의원을 처음 시작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의 선배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요셉의원이 서울역에서도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 **손 안젤라 수녀(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 저는 1989년도에 요셉의원 직원으로 들어갔다 2년 뒤에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초창기부터 요셉의원을 봐온 저로서는 요셉의원은 가난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심장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역으로 옮긴다고 할 때 영등포 노숙인 식구들을 생각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더 많은 환자를 찾아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 기도로서 지지를 해드리고, 필요하면 영등포 환자를 저희가 서울역으로 모시고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 데레사(토마스의 집 총무)** : 요셉의원과 30년 가까이를 이웃으로 지내왔는데,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감싸 안아온 요셉의원이 떠난다니 섭섭한 마음이 큼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또 서울역에 있지 않나 싶어 그곳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요셉의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 **서상홍 사랑의 집 대표** : 요셉의원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곳이지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다른 소공동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뒤에서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그런 병원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 종로 감사미사 후 3층 경당에서 사제단과 봉사의, 직원들과 함께.

♀

쪽방촌 향기

‘요셉의원에서의 봉사, 선택 아닌 사명’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홀로인 이들에게는 따뜻한 동행이 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작은 빛이 되게 하소서. 힘든 순간에는 성령께서 지혜와 인내의 은총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1991년 8월, 처음으로 요셉의원의 문을 두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를 바라보시던 선우 원장님께서 “뜻은 가상하지만, 이곳은 전문 의료인들이 진료하는 곳이니, 학생이라면 좀 더 공부한 뒤에 오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어려 보였던 탓이었겠지요. 제가 치과 개



이충규

본원 치과 봉사의 · 성심치과원장

원의임을 말씀드리자, 원장님께서 다소 당황하시며 연신 미안하다는 인사를 건네셨던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3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오랜 세월 봉사해 온 것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 앞에서 늘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그저 이미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존경받아야 할 분들은 그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신 분들입니다.

요셉의원에 들어서기 전, 저는 언제나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더욱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이곳을 찾는 환우들 대부분은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봉사자’라는 이름을 내세워 무심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얹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교만함으로 기울기 시작한다고 느껴지면, 봉사를 잠시 멈춰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성모님, 혹여 이 봉사를 통해 제게 공덕이 쌓인다면, 그것을 성모님께 봉헌하오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제가 봉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응답하고자 함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실천하는 봉사는, 세상이 말하는 봉사와는 그 본질이 다르다고 믿습니다. 물론 봉사의 손길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야 하겠지만, 그 깊은 지향은 하느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성체와 성혈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새긴다면, 봉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병들고 지친 이들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영등포 요셉의원의 봉사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만나는 이들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참된 위로와 희망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성 요셉처럼 조용히, 겸손히,

그러나 굳건히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상처 입은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홀로인 이들에게는 따뜻한 동행이 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작은 빛이 되게 하소서.

힘든 순간에는 성령께서 지혜와 인내의 은총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 마리아 님, 저희의 마음이 항상 당신처럼 순결하고 온유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신뢰로 가득 차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요셉나눔재단 의료봉사단(We Are One), 4일간 필리핀 의료봉사 내과와 신경외과, 치과 환자 등 모두 730명 진료



필리핀에 도착한 봉사단이 일과 시작 전 성공적인 봉사 활동을 다짐하며 자리를 함께했다.

본 재단 기념사업 활동의 하나로 결성된 해외 의료봉사단(단명 'We Are One') 제2기 봉사팀이 2025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필리핀 요셉의원 의료팀 및 봉사자들과 함께 마닐라 말라본시에서 도시 빈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단은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와 고영초 병원장을 비롯한 내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치과 전문의, 초음파 전문가, 방사선사, 약사, 의대·약대·간호대 학생 등 모두 27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15일 오후 필리핀 요셉의원에 도착해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봉헌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강론에서 “여러분들이 낯선 곳에서의 봉사라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택하셨지만, 받는 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보람있는 공로가 될 것”이라며, “선우경식 선생님과 필리핀 요셉의원을 일구신 최영식 신부님 그리고 오늘 성모님이 승천하신 날에 하늘나라로 가신 유경춘 주교님의 전

부가 필리핀 요셉의원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 주변 빈민촌 상황과 주민들의 생활상 그리고 이를 날부터 실시될 의료봉사 일정을 설명했다.

16일부터 17일까지 이들 동안 실시된 진료 봉사에는, 필리핀 요셉의원 에블린 의무원장을 비롯한 현지 요셉의원 직원과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 통역과 검사, 처방 등이 한층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16일 첫 진료는 말라본시에 있는 산 바르톨

구에 힘입어 보람있는 일정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봉사에 앞서 실시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 ‘필리핀 사회와 빈곤 문제’, ‘필리핀과 한국과의 관계: 코피노 문제’를 주제로, 미리 준비한 학생들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필리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필리핀의 가난한 환자들을 맞이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자는 취지였다. 이와 함께 김

다솔 필리핀 요셉의원 원장 신

단장	홍근표 신부 (요셉나눔재단)
의사	고영초 원장 (요셉나눔재단)
	김민정 (세브란스 영상의학)
	박상우 (김포 더맑은치과)
	박정의 (박정의 내과)
	양현숙 (건대병원 심장내과)
	이세원 (이대목동병원 혈액내과)
방사선사	이재혁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이종백 (대구 송현 효 양병원)
	조순정 (전 알파인인 근무)
간호사	하현주 (전 이대 약학대학장)
청년 봉사단	강서현 (덕성여대 약대)
	권보은 (덕성여대 약대)
	김민서 (서울대예대 예과)
	김보현 (단국대 의대 예과)
	서지윤(덕성여대 약대)
	신예빈 (화학과 졸업생)
	윤지영 (서일대 간호학과)
	임화진 (서울대예대 예과)
	전서현 (서울대예대 예과)
	이승준 (미국 고교 11학년)
봉사자	김형범 (태영인쇄 대표)
	노준철 (변호사)
	전영화 (태영인쇄)
	최원숙
직원	한동호
	신혜림

[표] 2기 요셉나눔재단 의료봉사단 참석자 명단.



필리핀에서의 봉사활동 모습. 왼쪽부터 아침 미사 장면, 노준철 봉사자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양치 교육을 하는 모습. 오른쪽은 치과 진료를 하는 박상우 원장.

로메 성당에서 이동 진료로 실시됐다.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외과, 신경외과, 치과, 영상의학과 등 각 과에서 370건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낮 일정을 마친 뒤 저녁 시간에는 의료진과 학생들이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 그날의 체험을 통해 느낀 점 등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서현 봉사자(덕성여대 약대 재학 중)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곳 도시 빈민들에게 의료비를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했고, 이번 봉사가 단순한 활동이라기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의 직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17일 진료는 필리핀 요셉의원 원내에서 실시돼 360명의 환자를 보살폈다. 18일 마지막 날은 필리핀의 역사 문화를 탐방하는 문화 교류의 시간으로 잡아, 마닐라 구시가지인 인트라무로스, 마닐라 대성당, 산 아구스틴 성당과 박물관을 방문했다. +



필리핀 의료봉사 소감

“단순한 경험 넘어 ‘부르심’ 깨닫는 시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요셉의원 필리핀 해외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축복이자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의원을 세우시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신故 선우경식 선생님의 정신을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갈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처음 요셉의원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학교에서 약을 배우는 것이 실제로 이웃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고 싶어 약 9개월 동안 봉사했고, 황보신씨 수녀님의 추천으로 첫 해외 봉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인연 덕분에 이번에도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첫 봉사에서는 연민의 마음이 컸다면, 이번에는 단순한 불쌍함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가정의 경제적 현실을 보며 의료비를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했고, 이번 봉사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의 직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족함과 분주함이 먼저 다가왔고, 밤늦게까지 약품을 정리하며 몸은 지쳤지만 맡겨진 몫을 다한다는 확신 속에서 더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과 나누었던 웃음과 감사의 인사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은 얼굴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함께한 이들의 존재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기들과 교수님

의 격려, 환자를 정성껏 돌보신 의료진의 헌신, 학생 의료진들의 수고 덕분에 고된 일정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련해 주신 분들, 그리고 현지 의료진과 신부님의 협력 속에서 우리는 국적과 언어를 넘어 하나임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故 유경춘 주교님의 “가난한 사람들 옆에서 더 함께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함께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면서 그 말씀이 저 안에서 되살아남을 느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봉사는 단순한 경험을 넘어 주님께서 제 삶에 새기신 부르심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연민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요셉의원 봉사는 저에게 단순히 약학을 배우는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약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명을 새기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제가 가진 작은 힘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삶도 주교님처럼 “더 함께하고 싶었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

도드립니다. +



사진 위는 이종백 방사선사와 김민정 영상의학과 의사, 신예빈 봉사자. 아래는 소감을 쓴 강서현 봉사자.

강서현

다미아나 · 덕성여대 약대 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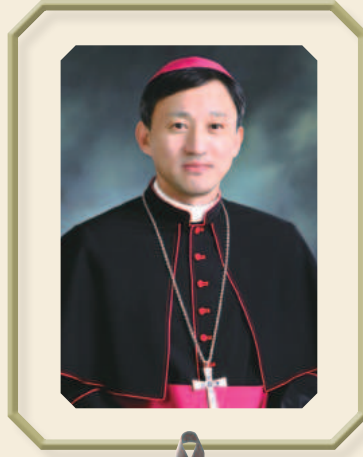
요셉나눔재단 이사장 유경춘 주교를 추모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축복 내려주실 것’

지난 8월 15일 선종한 고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는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로서, 또 본원이 요셉나눔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된 뒤 이사장을 맡아 본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왔다. 유 주교는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된 이듬해인 2014년 8월 28일 본원을 찾아 개원 27주년 기념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본원 직원과 봉사자, 쪽방 주민들을 따뜻하게 격려했다. 이날 미사에 앞서서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설거지도 하며, 치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환자들에게 일일이 개원 기념 선물을 건네기도 했다.

2019년 12월에는 본원 음악치료교실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해 주최한 ‘사랑의 음악회’에 참석해 함께 노래 부르며 어울리는 자상한 모습도 보여주었다. 유 주교는 특히 음악회 말미에 소영광송을 노숙인 출연진과 함께 열창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출타 시에 작은 프라이드를 손수 몰거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본인의 제의를 비롯해 손수 빨래와 청소를 했다는 얘기 등은 선



(1999~2008년)를 지내고, 명일동 본당 주임 4개월 만인 2013년 12월에 정순택 현 서울대교구장과 함께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2024년 1월 담도암 수술을 받은 유 주교는 항암 치료를 병행하며 입·퇴원을 반복했으나, 끝내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본원 초대 원장 선우경식 선생과

같은 나이인 63세에 선종하신 유 주교님은 하늘나라에서 선우 선생님과 함께 가난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에게 격려와 축복을 보내주실 것”이라며, “존경하는 주교님을 기억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분을 본받는 것”이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



영등포 요셉의원 식당 주방에서 이문주 전 원장신부(왼쪽)와 함께 설거지를 하는 생전의 유경춘 주교.

요셉의원 영성 연수 실시

‘서울역 요셉의원’ 시대 열며 새롭게 마음 가다듬기

요셉의원은 서울 영등포에서 서울역 부근 동자동으로 이전한 뒤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요셉의원 영성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는 가난하

고 소외된 이들에게 선우경식 선생의 형제에 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를 펼치기 위한 ‘마음 가다듬기’의 하나로 진행됐다.

요셉영성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의료팀과 행정팀, 경력직원팀으로 나뉘 각자 미리 읽어온 선우 선생의 전기 가운데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서로 나누고, 10여 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원 두 사람의 체험담도 경청했다.



본원 7층 경당에서 강현진 영성센터장 수녀가 영성 연수의 취지와 순서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3년 입사한 김재근 의료사업실장(임상병리사)은 “대학병원에서 퇴직한 뒤 요셉의원에 지원했지만 하느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저를 초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고, “요셉의원에 재직하는 동안 본당에서 성서백주간, 레지오마리아, 구역장 등 본당 활동도 활발히 하며 사명감 있게 일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이곳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느님이 불러주셔서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라며, “요셉의원에서의 삶을 통해 모두가 은총을 입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2005년에 입사해 선우경식 원장을 모시고 사무장 등을 역임한 한동호 후원관리팀장은 “원장님은 신사답고 섬세하시면서 외유내강의 성격을 지니셨다”며, “남의 집에서 샤워를 하신 다음에는 수건으로 목욕실 벽을 모두 닦고 청소를 하고 나오실 정도로 남에 대한 배려가 크셨다”고 전했다. 한 팀장은 “푸코 성인을 흠모하신 원장님은 나자렛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가난과 나눔, 겸손을 스스로 실천하셨고, 직원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강요는 안 하셨지만, 책도 가끔 나눠주시곤 했다”고 회고했다.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영성 연수를 마무리하며, “미혼모인 성모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살핀 노동자 요셉 성인, 묵묵히 노동으로 점철된 나자렛 예수의 삶을 살고자 한 사를 드 푸코 성인, 선우 선생이 하루 40단씩 묵주기도를 바쳤던 성모님이 선우 선생의 신심과 형제애의 바탕이라고 생각된다”며, “선우 선생은 벽장에 모셔두었던 성모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그 눈물이 마르시기를 간청하면서 가난한 이들 속으로 투신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신부는 신입 직원을 위해, 필리핀 요셉의원을 세운 최영식 마티아 신부와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를 일군 이문주 전 원장신부의 활동과 헌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요셉의원 작은도서관 지킴이, 황돈 관장 퇴임

2005년 3월 본원에 입사해 직원과 봉사자로 일해온 황돈 도서관장(78)이 영등포 요셉의원 진료가 마감되는 7월 18일부로 퇴임했다. 황 관장은 본원 선우경식 초대 원장이 발탁한 원원 직원으로, 전자회사 동양정밀(OPC)에서 퇴직한 뒤 요셉의원 사무장으로 입사했다. 선우 선생 선종 후 정년을 맞아 본원을 떠났던 그는 한국가톨릭 레드리본 창립 멤버로 3년간 활동했다. 이후 요셉의원 도서관실이 문을 열자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14년 동안 도서관장으로 봉사했다. 영등포에서 이전하는 서울역 요셉

의원은 공간이 협소해 도서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황 관장은 2011년 당시 2,000권에 불과하던 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퇴직 전까지 6,000권으로 크게 늘리고, 영등포구청에 ‘작은도서관’으로 정식 등록하는 등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황 관장은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이 가능한 한 음주를 줄이고 도서관을 찾아 책을 즐겨 볼 수 있도록 간식도 준비하고, 독후감 쓰기 프로그램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연간 20~80편씩 제출되는 독후감은 도서관 게시판에 게시해, 도서관 열람자들이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토록 했다.

황 관장은 “노숙인 중에는 드물지만 전직 교수나 기업 임원을 지냈던 이들도 있다”며, “열람자들이 도서관에서 떠들지 않고 조용히 책을 보거나, 도서를 대출·반납하는 것도 스스로 알아서 기록하도록 했더니 오히려 효과가 좋았다”고 말했다.

황 관장은 이날 근속 감사패를 받고 “요셉의원이 신림동과 영등포를 거쳐 큰 나라를 펴고 서울의 중심부로 진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고, “요셉의원 직원과 봉사자 모든 분들도 개인적으로 큰 성취와 도약을 이루시기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황돈 요셉의원 작은도서관 관장은 장서 수를 대폭 늘리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본원 음악치료 교실, 영등포 요셉의원서 고별 음악회 가져



6월 26일 영등포에서의 마지막 음악치료교실 장면.

쪽방 주민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며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해 힘써온 본원 음악치료 교실(지도 김군자 교수), 6월 26일 수업을 끝으로 영등포에서의 강좌를 마감하고, 고별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6시 10분 영등포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 열린 '사랑의 콘서트, Addio(안녕) 영등포' 공연에는 교실을 이끄는 음악치료사 4명(이성혜 이병진 희 민미호 윤정인)과 초청 성악가 소프라노 이진희 교수(경기대 대학원), 소프라노 홍정아(성신여대 재학), 본원 고영

초 병원장이 무대에 올라 쪽방 주민과 직원 및 봉사자들에게 열정 어린 감동을 선사했다.

연주곡목은 독창으로 △소프라노 홍정아의 '아베마리아'와 'O mio babbino caro' △고영초 원장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진희 교수의 '새타령', 'O sole mio'와 함께, △민미호 피아니스트가 즉흥 연주로 '민요 메들리'를 연주했다.

중창으로는 이성혜·이병진희 음악치료사가 기타 반주를 하며, 힘들고 지칠 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곡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으로 분위기

를 고조시켰다. 이어 고영초 원장과 이진희 교수가 플라시도 도밍고와 모린 맥거번이 불러 유명해진 '세상 끝 날까지의 사랑(A love until the end of time)'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일궈내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본원 음악치료에 여러 번 참여해 '작은 공연'을 펼친 바 있는 이진희 교수는 이번 음악회에서도 돋보이는 음악적 열정과 친화력을 한껏 발휘해 영등포에서의 마지막 공연에 빛을 더했다.

우리나라 음악치료의 선구자이자 본원 음악치료 교실을 개설해 이끌어온 김군자 교수는 마무리 인사말에서 "2009년 목동의 집에서 음악치료를 처음 시작해 영등포 요셉의원에서 20~50명의 쪽방 주민과 함께 해온 13년 여정이 꿈만 같다"며, "우리 음악치료사 선생님들과 도와주신 수녀님들의 진심어린 봉사에 깊이 감사드리고, 서울역 요셉의원이 비록 장소가 좁지만, 음악치료 교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본원 음악치료교실이 주최한 '사랑의 콘서트, 안녕 영등포'의 공연 모습. 왼쪽부터 이진희 교수의 열창, 이진희 교수와 고영초 원장의 듀엣, 이성혜 이병진희 음악치료사의 중창, 자리를 함께한 본원 임원진과 김군자 교수 등 음악치료사들.

마지막 목요 식사 나눔에 흑돼지 고기 후원

본원이 서울역 앞으로 이전함에 따라, 영등포 요셉의원에서 매주 실시하던 목요 식사 나눔이 6월 26일 오후 본원 1층 식당에서 마지막 식탁을 차렸다. 이날 식사 나눔에는 영등포 쪽방촌 주민과, 목요

일마다 찾아오는 노숙인 159명이 참여해 기쁘게 음식을 나눴다. 배식과 잔반 처리, 설거지 등을 돕기 위해 도림동성당, 세종로성당 등에서 찾아온 자원봉사자 20여 명은 아쉬움을 달래며 마지막 봉사에 참여했다.





6월 26일 마지막 목요 식사나눔 모습. 박문실 봉사자(왼쪽)가 제주 흑돼지 삼겹살 40kg을 후원해 풍성한 식탁이 마련됐다.

이번 식사 나눔에는 특히 목요 나눔 때마다 배식 봉사를 해온 박문실(라우렌시오) 봉사자가 제주 흑돼지 삼겹살 40kg을 후원해 풍성한 식탁을 차릴 수 있었다. 영등포 요셉의원 옆 무료 급식소 '토마스의 집'에서 매일 배식 봉사를 하는 박 봉사자는 전에도 본원에 네 차례나 흑돼지 삼겹살을 후원한 바 있다.

8월 1일부터 시범 진료를 시작한 서울역 요셉의원은 공간이 협소해 많은 인원에게 동시에 음식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부근에는 무료 급식소가 몇 군데 있는 데다 도시락 나눔도 활발한 편이어서, 본원은 일단 진료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경원 치과봉사의, 후원금 1천만 원 쾌척

본원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치과 진료를 하는 김경원 봉사의가 8월 26일 EBS의 국제영화상 지원 상금 9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해

본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치과 진료를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일'로, 영상 제작을 '좋아하는 일'로 생각하는 김 봉사의는 최근 본업인 치과를 '부업'으로 하고, 영상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김 봉사의는 "요셉의원의 영등포 시절과 이후 이사가는 서울역 요셉의원 초기 영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작업하던 중 EBS 국제영화제에 일부 촬영 편집본을 공모한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말하고, "요셉의원의 도움으로 제작한 만큼 요셉의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정 기탁금으로 후원했다"고 밝혔다. +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왼쪽), 고영초 원장과 함께, 가운데가 김경원 치과봉사의.

환자스토리

고아원 거치며 힘겹게 세파 헤쳐온 안인철 환자

“틀니부터 하고 일거리 찾아봐야죠”

서울 중림동 쪽방에 거주하는 안인철(61) 씨는 눈 주위가 혈고 다리에 피부병이 생겨 8월 1일 본원을 찾았다. 이날은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해 진료를 재개한 첫날이었다. 본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쪽방 상담소에 들렀더니 간호사 선생이 ‘무료로 진료해주는 요셉의원이 서울역 부근으로 이전해 문을 열었으니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안 씨는 눈병과 피부병 외에 치아 상태도 좋지 않아 틀니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다행히 용산구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틀니를 지원하고 있어, 틀니를 끼우기 위해 이미 치아를 모두 발치한 상태였다.

최근 경기 침체 탓에 안 씨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은 일감을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그는 “한 달 내내 일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요즘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용역사무실을 통해 일을 나간다”고 말했다.

“용역사무실에서든 힘 있는 젊은 사람만 원해요. 나이 든 사람은 주로 청소나 공사 현장의 교통 안내 같은 힘이 덜 드는 일로 보내는데, 그마저도 일이 없어 운이 좋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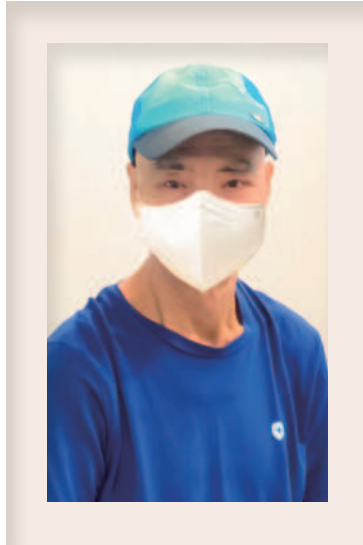
갑니다.”

그는 구청에서 매달 주거급여 26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급여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된다. 생활비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는 일용직 급여 20여만 원을 근근이 쪼개 쓰고 있다. 식사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동행식당’ 카드를 활용해 하루 한 끼를 해결하거나, 인근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며 “굶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제주가 고향인 안 씨는 부모를 모두 여의고,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다.

두피가 헐어 있었던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전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고 회상한다.

“학교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해서 참 서운했지요. 그래서 몰래 배를 타고 목포로 갔어요. 목포의 다른 고아원에 들어갔다가 대전 성지원, 조치원 양지원으로 옮겨 다녔습



로 옮겨졌지요.”

“60대 초반이지만 일감만 있으면 열심히 해볼 생각”이라는 그는, “건물 미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면 치아가 없어서 탈락해, 먼저 틀니를 한 다음에 일거리를 다시 찾아보겠다”며 조심스레 희망을 내비쳤다.+

후원의 손길



선우 선생 전기 읽고 감동 받아 기부금 전달한 김조자 후원자

“선우 선생의 헌신 생각해 끝까지 후원할 생각입니다”

“요셉의원 고영초 원장님으로부터 선우 선생 전기를 전달받아 읽고 너무 감동해 요셉의원에 후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4월 본원에 50만 원을 기부하고, 이어 5월에 1천만 원을 전달한 김조자 후원자(85)는 80대 중반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선우 선생님의 깊은 뜻과 헌신에 감명 받았다”며, “그분의 뜻이 계속 이어져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원자는 본원에 후원하기 전부터 기회만 닿으면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관심을 쏟아왔다. 함께 가곡을 부르며 친목을 다지는 한국예술가곡연주협회 회원으



로, 시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 동료인을 돕는 모임

에도 여러 차례 후원했다. 또 부모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아이를 돌보는 보라매 고아원과, 미혼모와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송죽원 등에도 해마다 따스한 손길을 보내고 있다.

“살아가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분들이 많지요. 하느님이 이런 분들을 도우라는 가르침을 주셨기에, 힘 닿는 데까지 돕고 있습니다.”

대구 동산기독병원 간호 고교를 졸업한 뒤 효성여대(현재 가톨릭대) 약대에 진학한 김 후원자는 약사 면허를 취득한 뒤 바로 결혼해 3남매를 정성껏 키웠다고 술회했다. 고교 시절 무료로 기숙사 생활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 10년 전 모교에 1천만 원을 기부했고, 이어 가

톨릭대 약대에는 올해까지 4억 원, 내년에 1억 원을 더 기부할 예정이다.

또 남편과 10여 년 동안 열심히 다니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모 교회에도 1억 원을 후원하는 등 인연이 닿는 필요한 곳에 큰돈을 희사했다.

사업가도 아닌 주부가 이렇듯 ‘기부 큰 손’으로 불리게 된 특별한 배경은 무엇일까.

“남편이 출판업을 하셨는데, 고령에 접어들면서 재산을 가족들에게 분배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몫은 좋은 곳에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건축학 교수 등으로 일하며 ‘자

기 앞가림’을 충분히 하고 있어, “남은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녀들을 다 키운 60대 중반에 시민대학 가곡반과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에 등록해 가곡에 입문한 그는 16년 동안 활동하다 80세에 은퇴했다. 그리고 가곡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펜 담채화를 배웠고, 지금은 도시 풍경 스케치(어반 스케치)와 한국화를 공부하고 있다.

1년에 네댓 차례 한국예술가곡연주협회 회원들과 이수인 작곡가 집에서 여는 ‘성산 살롱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는 그는 “선우 선생의 뜻을 기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후원하겠다”고 다짐했다.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 (2025년 6월~7월)

■ 요셉나눔재단

●KIMSUKHYUN ●가경민 ●강경진 ●강미경 ●강승엽 ●강정옥 ●강태진 ●강혜준 ●계희성 ●고경민 ●고혜수 ●공병환 ●곽두팔
●곽순자 ●곽윤정 ●곽정미 ●곽중대 ●구본왕 ●구선희 ●권보은 ●권순일 ●권영상 ●권영희 ●권용철 ●권희섭 ●기나미 ●김국년
●김금용 ●김기환 ●김남근 ●김덕화 ●김동근 ●김려원 ●김명남 ●김명옥 ●김명자 ●김명혜 ●김미영 ●김미예 ●김미진 ●김민서
●김민석 ●김보현 ●김비오 ●김 빛 ●김상미 ●김선경 ●김성민 ●김성수 ●김성혜 ●김성훈 ●김소울 ●김수암 ●김숙희 ●김승환
●김승훈 ●김연선 ●김영규 ●김영민 ●김영아 ●김용빈 ●김원묘 ●김유진 ●김윤영 ●김은경 ●김은실 ●김일진 ●김장량 ●김재홍
●김정수 ●김정용 ●김정화 ●김정후 ●김제화 ●김종열 ●김종오 ●김주민 ●김주아 ●김지수 ●김지영 ●김지환 ●김찬호 ●김철주
●김철진 ●김태건 ●김태경 ●김태림 ●김태범 ●김태진 ●김태호 ●김태홍 ●김한도 ●김현미 ●김현진 ●김호덕 ●김홍식 ●김희경
●김희문 ●나기준 ●나형일 ●남영수 ●남영숙 ●남옥인 ●남우현 ●남유진 ●남지영 ●남화원 ●노유곤 ●노태운 ●노하림 ●노현석
●라인정 ●류미소 ●말가리다 ●맹인호 ●맹호정 ●명수환미카엘 ●명혜권 ●문세림 ●문우봉 ●박광서 ●박근희 ●박근희 ●박기웅
●박남희 ●박미주 ●박민숙 ●박성옥 ●박성옥 ●박수아 ●박수연 ●박수진 ●박순희 ●박영기 ●박영택 ●박영현 ●박예원 ●박용석
●박우재 ●박유형 ●박재진 ●박정열 ●박정의 ●박준호 ●배현순 ●백아랑 ●백윤정 ●백종아 ●백창열 ●백충현 ●서수경 ●서 울
●서재원 ●서지윤 ●서진석 ●서진희 ●서판성 ●서효정 ●석혜진 ●손희정 ●송현석 ●송효석 ●신대근 ●신동훈 ●신승목 ●신아정
●신인섭 ●신 정 ●신정혜 ●신현경 ●심가현 ●심상훈 ●심준호 ●심진순 ●안경화 ●안정애 ●엄세용 ●엄주영 ●여민지 ●연수지
●오경숙 ●오경환 ●오동근 ●오수현 ●오우경 ●오유정 ●오의정 ●오 철 ●요세피나 ●우새미 ●원정아 ●유명상 ●유재승 ●유정환
●유지연 ●유지형 ●유혜현 ●유호석 ●윤미현 ●윤민구 ●윤상현 ●윤영갑 ●윤 정 ●윤정선 ●윤지영 ●윤 창 ●윤환선 ●이강윤
●이경운 ●이경희 ●이규석 ●이금우 ●이기선 ●이남재 ●이 도 ●이도희 ●이동근 ●이미경 ●이병옥(헬레나) ●이병훈 ●이봉석
●이상은 ●이상일 ●이상희 ●이서규 ●이선수 ●이선영 ●이선표 ●이세미 ●이소영 ●이소행 ●이수민 ●이순례 ●이순림 ●이슬기
●이승선 ●이승아 ●이승아 ●이승주 ●이승철 ●이승희 ●이영림 ●이영애 ●이영임 ●이용호 ●이유진 ●이윤숙 ●이윤희 ●이은신
●이은희 ●이인경 ●이인숙 ●이인영 ●이재호 ●이정순 ●이정옥 ●이정용 ●이정원 ●이정희 ●이종호 ●이주상 ●이주윤 ●이준희
●이지민 ●이지현 ●이지혜 ●이진상 ●이진영 ●이진용 ●이진희 ●이찬규 ●이춘성 ●이태순 ●이향기 ●이혜선 ●이호연 ●이환욱
●이희순 ●임분희 ●임선주 ●임수아 ●임승균 ●임영에데레사 ●임원호 ●임정원 ●임지애 ●임현아 ●임희진 ●장남숙 ●장명규
●장성희 ●장현관 ●장현수 ●장현우 ●전상기 ●전서현 ●전성현 ●전아라 ●전영서 ●전주영 ●전준영 ●정경환 ●정관식 ●정민석
●정병철 ●정성희 ●정수동 ●정영은 ●정영희 ●정유철 ●정윤희 ●정은주 ●정은파 ●정지원 ●정진만 ●정찬혁 ●정혜진 ●정홍석
●정호숙 ●조규석 ●조규성 ●조문희 ●조상기 ●조아라 ●조영수 ●조영옥 ●조유미 ●조은경 ●조현국 ●조현숙 ●조현용 ●좌은정



●주상국 ●주희정 ●지미영 ●차광욱 ●채민영 ●최경화 ●최광은 ●최근혜
●최 리 ●최석환 ●최설희 ●최연정 ●최우정 ●최원숙 ●최윤철 ●최장원
●최정아 ●최정애 ●최정자 ●최종우 ●최준식 ●최지연 ●최지영 ●최지영
●최찬호 ●최행관 ●최현숙 ●최 호 ●최희남 ●최희범 ●크리스티나
●피성진 ●하정현 ●하호영 ●한기숙 ●한상미 ●한선희 ●한수미 ●한윤경
●한정범 ●한혜정 ●함상헌 ●허미연 ●현지원 ●홍경숙 ●홍경옥 ●홍나겸
●홍새빈 ●홍주연 ●홍지수 ●홍지연 ●황선영 ●황예나 ●황용환 ●황해진

■ 요셉의원

●김석주 ●김성자 ●김이슬 ●김정인 ●문영민 ●박경진 ●박진창 ●배영표
●백은영 ●서장원 ●안치성 ●이순형 ●이해울 ●임연택 ●임영애데레사
●임영애울리안나 ●정경애 ●주희엽 ●최윤정 ●최중현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5년 6월~7월)

■ 요셉나눔재단

●(주)한남관광개발 ●영화실업(주) ●영등포구의사회

■ 요셉의원

●강의사라 ●아이매드 ●엔젤합창단 ●한국유니온제약(주)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5년 6월~7월)

●강신걸·김선화(피스 오브 헤븐) : 빵 120봉지 ●김유순 : 감자 1상자 ●김평옥
유스티나 : 밤호박 3상자 ●김홍희 테오도로 : 토마토 2상자 ●꿀벌유치원 : 쌀 35kg
●목동성당 : 건미역 6상자, 호도정과 3상자 ●박문실 라우렌시오 : 상추 1상자,
흑돼지 40kg ●상영재단 : 쌀(10kg용) 50포대(500kg) ●영등포구청 : 생수 2000개
●익명 : 두유 4상자 ●한진희 : 감자 3상자 ●행복공학재단 김진석 : 쌀 10kg
●행선당 : 옥수수, 아채, 배추 각각 2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2025년 6월~7월)

●목동성당 : 수건 4자루(봉지) ●서*력(파주시) : 의류 1상자 ●이슬기 : 의류
1상자 ●주연에프앤씨(주) : 티셔츠 500장 ●홍은주 : 의류 3점, 가방 1개

+ 의료기·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2025년 6월~7월)

●이승준 목사 : 텔미라플러스 외 1종 ●제일한방 : 한방파프 ●하나제약 : 암로디핀
외 35건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2025년 4월~5월)

●박*경(부산) : 잡화 1상자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요셉나눔재단 인사 발령

●법인사무국
사무국장 겸 기획조정 : 이동건

+ 요셉의원 인사 발령

●요셉이웃사랑센터(신설)
센터장 : 안분이 수녀
진료지원팀장 겸 봉사자관리팀장 : 박상옥
방문진료팀장 : 김경미
사회사업팀장 : 김정애
진료지원팀 및 봉사관리팀원 : 홍정우
●요셉영성센터(신설)
센터장 : 강현진 수녀
기록관리팀장 : 신혜림
홍보팀원 : 김병희
영성구현팀원 : 정운식
●의료사업실
전산팀장 겸 원무팀장 : 이승덕
원무팀원 : 김정순
관리안내팀 : 정재진(이상 7월22일 부)
치과팀원 : 조현숙 박혜미
간호팀원 : 박서현(이상 8월 13일 부)
영선팀장 겸 관리안내팀원 : 이태구(8월19일 부)
●행정실
행정실장 : 김정민
재무회계팀장 : 이상선, 팀원 : 김성권
후원관리팀장 : 한동호
영양팀장 : 심인숙, 팀원 : 김현진
(이상 2025년 7월22일 부)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의 사 : 정중식(응급의학과·종로사무소)
●약 사 : 김미정 변효진 양취매 이소영
이영숙 이정현 이주영 이해용
최명자 황의영
●간호사 : 권미경 임양호 박가은
최금묘(방문진료) 최호정(방문진료)
●임상병리사 : 고은비 김지원 오정연 제갈예진
●일반 봉사
[약제팀] 동국대 2명 숙명여대 3명 이화여대 2명
[아웃리치] 6명
[병원 안내] 반포성당 빈첸시오회
최수용 베네딕도 외 12명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김종근 ●돈보스코청소년센터 ●사랑의 집
●영등포 쪽방주민 ●정릉 공부방 ●카프성모병원
●토마스의 집 ●하늘자리 평화의 집 ●한사랑공동체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5년 6월	1,543명
2025년 7월	964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5년 7월 말 현재)

773,484 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5.06~07



필리핀요셉의원



김다술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요셉나눔재단 의료봉사단 'We Are One'과 합동 진료 봉사



서울에서 찾아가는 요셉나눔재단 의료봉사단과 필리핀요셉의원 봉사자들이 산 바르톨로메 성당에서 봉사 전 함께 포즈를 취했다.

요셉나눔재단 의료봉사단 'We Are One' 팀이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필리핀 요셉의원을 방문해 합동 진료 봉사와 지역 주민을 위한 교류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봉사에는 서울 요셉의원 고영초 원장(신경외과)을 중심으로 심장내과, 혈액내과, 신경외과, 치과, 약제팀 등 전문 의료진과 의과대학·간호대학·약학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한층 깊이 있고 폭넓은 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 봉사에서는 환자들이 각 진료과 전문의를 직접 만나 진단과 처치를 받을 수 있었고, 현장에서 엑스선 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즉시 시행해 더욱 정밀한 진료가 가능했다. 또한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의무원장이자 소아과 전문의인 에블린(Evelyn) 박사팀이 참여해 소아 환자에 대한 다각적인 협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진료과와 연계해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현지 의료진에게 체계적으로 인계해 지속적인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첫날에는 말라본시 산 바르톨로메 성당에서 약 370명, 둘째 날에는 필리핀 요셉의원 클리닉에서 약 36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와 처방, 간단한 수술까지 시행했다.

이번 'We Are One' 팀의 방문은 단순한 의료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도 되었다. 진료 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치러졌다. 치약과 칫솔을 나누어주며 위생 교육을 실시했고, 페이스 페인팅, 비눗방울 놀이 등이 진행됐다. 이러한 활동은 어린이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봉사팀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다술 원장신부는 "이번 봉사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나누는 친화적 교류의 장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그 의미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요셉나눔재단 의료봉사단 진료 장면(사진 위). 아래는 필리핀요셉의원 에블린 의무원장의 환자 진료 모습.



복음 묵상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아야 하는데도 떠나보내게 되는 이 순간은 어려움이자 도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서도 우리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놓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내게서 나오는 분노나, 실망감에서 나오는 멀어짐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선을 지향하기 위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얼마 전 요셉의원 직원 한 명을 퇴직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 처리이긴 하였지만, 모든 과정은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48시간의 변론 기회도 제공되었고, 해고 사유서도 요셉의원 명의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잘 지냈던 직원이었기에 마음의 주저함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안타깝기도 했고, 그 직원의 앞날이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의원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요셉의원의 전체에 더 나은 일이고, 그 직원 본인에게도 더 이로운 일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 직원도 여기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공감하고 특별한 일 없이 모든 것을 수긍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개인적으로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요셉의원은 언제까지나 사람을 모아들이는 곳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사제가 되었지, 밀과 가라지를 심판하러 사제가 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사제로서의 정체성 사이의 치열한 다툼이었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요한17,21)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말씀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핑계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직원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오직 이 말씀 하나였고, 그만두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수십 개는 되었습니다. 이 틈에서 수많은 괴로움이 생겨났습니다. 몇 날 며칠의 고민이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떠나보내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로를 위한 선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에는 보이지 않는 중대한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잘 못했으니 그만두도록 해야 하고,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 미리 그 싹을 잘라야 한다는 논리만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떠나는 이와 남아 있는 사람의 선을 고려한 결정이었고, 떠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존중받으며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할 따름이었습니다. 단절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그 직원의 과실이 원인이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과 노고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요셉의원과는 멀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의원이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를 초대하고 환대의 정신으로 맞이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를 모아들이고, 그들이 하느님 사랑 안에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직원을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에도 이 정체성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아야 하는데도 떠나보내게 되는 이 순간은 어려움이자 도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서도 우리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놓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내게서 나오는 분노나, 실망감에서 나오는 멀어짐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선을 지향하기 위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고 필요에 의해 사귀지 않으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이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에서도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대구가톨릭치과의사회, ‘맞춤 치과 진료’로 기쁨 선사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대구가톨릭치과의사회 소속 황경문 선생과 추진호 선생이 필리핀 요셉의원을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을 위한 치과 진료 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약사 1명과 치위생사 1명도 함께 참여해, 진료와 치료 지원, 구강 위생 교육 등을 도왔다.

필리핀 현지 치과 진료는 대체로 발치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봉사팀은 충치 치료(때우기)와

신경 치료까지 진행해 현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지 최저 일당이 약 690 페소(한화 약 1만 7천 원)인데 비해 발치 비용만

도 500페소(한화 약 1만2천 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치과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도 이곳 환자들 역시 가능하면 치아를 살리고 보존하고 싶어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돈이 드는 때우기 치료를 포기하고 발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이번 진료는 현지에서 보기 드문 기회여서, 치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몰려들었다. 아침 일찍 시작된 진료는 점심도 걸러가며 이어졌고,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오랫동안 아팠던 치아가 회복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돌아갔다.

황경문 선생과 추진호 선생은 발치뿐 아니라 환자 상태에 맞춘 다양한 치료 기술을 구사하며, 열악한 환경과 긴 시간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이들 의료진의 희생과 노력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현지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대구가톨릭치과의사회 추진호 원장(왼쪽)과 황경문 원장(오른쪽)이 치과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장학생 70여 명, 한여름 수영장 나들이...“손꼽아 기다렸던 하루”

7월 13일, 필리핀 요셉의원 장학생 70여 명이 연중 행사로 진행되는 수영장 나들이에 참가했다. 이 행사는 1년에 한 번 장학생 전원이 함께 떠나는 일정으로, 아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로 알려져 있다.

이곳 아이들 역시 한국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 특히 가장 무더운 계절이면 누구나 물놀이를 원한다. 평소 비가 많이 와 도로가 잠기면 물에 나와 놀기도 하지만, 깨끗한 물에서 안전하게 놀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다. 그런 이유로 매년 진행되는 수영장 방문은 아이들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행사 당일, 장학생 중 대학생들로 구성된 교사회가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기다렸던 행사에 웃음과 활기를 더했다. 요셉의원 급식을 담당하는 주방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치킨을 튀겨 제공해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아침 일찍 시작된 일정은 아이들의 뜨거운 열정

속에 이어졌고,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물속에 있기 위해 식사 시간도 아껴가며 물놀이를 즐겼다.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자 많은 아이들이 아쉬움을 나타내며 “조금만 더”를 외칠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수영장 나들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깨끗한 물에서 마음껏 뛰놀며 안전하게 여름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아이들이 함께 만든 이날의 추억은 또 한 해를 기다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장학생들 (왼쪽). 오른쪽은 점심 식사 시간.

치과·산부인과 분야 임상실습 및 지역사회 보건 협력

필리핀요셉의원은 2025년 올해 교육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보건과 전문 의료 인력 양성 지원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닐라중앙대학교 치과대학(Manila Central University - College of Dentistry,



김다솔 원장신부와 에블린 의무원장이 협약을 맺은 마닐라 중앙대 의료진과 함께.

MCU COD)과 산부인과 양쪽과 연이어 협약을 체결해, 구강 보건과 여성 건강 분야의 임상 실습 및 예방 중심의 의료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MCU 치과대학과의 예방 중심 치과진료 협약

요셉의원과 MCU COD간의 '협약서(Contract of Affiliation)'에 따라, 치과대학 학생들은 환자 교육, 스케일링·폴리싱, 불소 도포, 발치, 보존·보철 치료 등 다양한 진료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단순 발치나 통증 완화 중심의 기존 치료에서 벗어나, 환자가 스스로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건강 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충치와 구강 질환 예방 등 예방적 치료의 비중을 높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장기적인 구강 건강 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마닐라중앙대 치대 학장 카마초(Camacho) 박사는 “학생들이 단순히 환자를 일거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구강 문제에 더욱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요셉의원과 협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요셉의원은 실습 시설과 장비, 치과 재료, 교수진 감독 환경을 제공하며, MCU는 학생들의 위험 동의서 확보, 감독 교수 배정, 규정 준수,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이행 등을 책임진다.

‘산부인과(OB-GYN) 재단’과 여성 건강 실습 및 봉사 협약

마닐라중앙대학교 산부인과 재단과의 업무협약(Memorandum of Agreement)은 여성 건강과 관련된 현장 실습, 환자 관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부인과 재단’은 숙련된 강사진과 교육 자료, 필수 장비를 제공하고, 요셉의원은 실습 공간과 환자 케이스, 필수 소모품과 장비를 지원한다. 학생들은 산전·산후 진료, 부인과 질환 관리, 초음파·혈압 측정 등 실제 진료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협약에는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필리핀요셉의원의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는 마닐라 중앙대 치대 교수와 학생들.

사고와 법적 책임, 보험 적용 범위,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됐다.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인재 양성의 이중 목표

요셉의원은 이번 두 건의 협약을 통해 단순히 학생들에게 임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차세대 의료 인재가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다솔 신부는 “이번 협약은 교육과 진료, 지역사회 봉사를 통합하는 의미 있는 행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관과 협력해 예방 중심,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 2025년 6월~7월 신규 후원 회원

● 고정훈 ● 권희경 ● 민병은 ● 백현정 ● 임영애

+ 225년 6월~7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3,078명 ● 급식 789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 (2025년 7월 현재)

● 진료 114,971명 ● 급식 496,852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17:10 요셉의원 내 7층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2025.04~05

홀씨

국제성경시도직후원회 소식지



국제성경시도직후원회(국성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홍근표 지도신부 강론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는 ‘사라+엘’ 즉,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가톨릭 신자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쁘게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2025년 7월 8일 (화) 국성회 후원회 미사 강론에서)



Jacob & Israel

[선교 현장에서 온 편지] 에티오피아 아소사 난민캠프에서 성경공부 지원 요청

“수단·남수단 난민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십시오”



아소사 난민캠프에서의 미사 장면.

안녕하세요, 국성회 여러분. 저는 대전교구의 허웅 프란치스코 신부라고 합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메트로폴리탄 대교구의 브라한예수 추기경(Abune Berhaneyesus Souraphiel)의 초청으로 2024년 6월에 에티오피아로 출국했고, 2025년 2월 25일자로 수도 동편 볼레 아랍사(Bole Arabssa) 지역의 신설 본당에 파견 발령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의 재개발 때문에 외곽지대로 강제 이주한 주민들로 구성된 이곳에는 독재국가 에리트리아로부터 탈출한 난민 중 현재 가톨릭 신자 80여 명을 포함하여 250여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신설 본당을 준비하던 중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의 아소사(Asosa) 난민 캠프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소사 난민 캠프촌은 20년 전부터 에티오피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수단과 남수단으로부터 들어온 피난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네 개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각 공동체(약



현지 난민 캠프에서 난민들과 함께.

10,000여 명) 안에는 각각 80~120여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다섯 번째 캠프를 만들고 있으며, 그곳에는 '사랑의 선교회' 수녀들이 난민들에게 신앙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 에티오피아 가톨릭 교회로부터는 사목적인 배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디스아바바로부터 난민캠프가 위치한 아소사 지역까지 가는 길은 내란과 지역 분쟁으로 육로를 이용한 이동이 불가능해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기에, 에티오피아 가

톨릭 교회의 턱턱지 않은 형편상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 3월에 저는 선교사들과 난민 캠프를 방문했고, 그때 현지에서는 난민 출신 청년들을 선출하여 교리교사를 양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교리교사 양성은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리교사를 위한 영어 성경과 교사용 교리서, 각 공동체의 공용 성경을 준비해 이들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그 뒤에 아디스아바바 대교구의 신설 본당은 사목 여건이 준비되는 대로 본당 차원

에서 성경 지원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현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성경은 케냐와 아랍 지역에서 수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지 난민 청년 중에서 선출된 이들을 대상으로 신자 재교육을 실시하고, 교리교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난민캠프의 신자들은 주로 수단과 남수단 출신들인데, 에티오피아의 가톨릭 교세보다도 그 비율이 월등히 높고 청년층의 영어 가능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성된 현지 청년들은 각 공동체에서 어린이들에게는 교리교육, 성인 신자들에게는 재교육과 성서공부 등을 실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제는 연 4회 사목 방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사를 주고, 필요한 요청을 경청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연결점을 찾아보면서 신자들의 성경 활용과 공부를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는 미국의 마리아 선교 재단(Mary's Missionaries) 평신도 선교회와 협력하여 난민 캠프의 공소들을 수리하고 최소한의 교리실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불가항력으로 삶의 터전을 떠난 난민들의 신앙생활에 국성회가 도움 주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2025년 5월 10일 에티오피아에서 허웅 신부 드림



난민 캠프에서의 미사 장면(왼쪽)과 캠프 집회 장소.

☞ 2025년 6월 12일 허웅 신부에게 아소사 난민캠프 교리교사들과 신자들을 위하여, 교리교사용 영어성경 40권(\$400, 권당 \$10), 교리교사용 영어 교리서 25권(\$175, 권당 \$7), 난민캠프 신자용 영어 성경 30권과 아랍어 성경 30권(\$600, 권당 \$10), 성경 주문 세금 및 배달비(\$400)를 후원하였습니다.(\$1,575=2,142,000원).



[가톨릭 상식]



에티오피아 가톨릭 교회의 역사와 현황

에티오피아의 가톨릭 교회는 에티오피아 가톨릭 교회(Ethiopian Catholic Church)와 로마 가톨릭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에티오피아 가톨릭 교회는 4세기 경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에서 유래되어 에티오피아 전례를 따르는 동방 가톨릭 교회의 일원으로, 라틴 전례가 아닌 알렉산드리아 전례 중에서 게에즈 전례(Ge'ez Rite)를 따른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직접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했다. 다른 동방 가톨릭 교회와 달리 에티오피아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기혼자가 사제로 서품될 수 없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메트로폴리탄 대교구의 마리아 탄생 주교좌 대성당 전경.

라틴 전례를 따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자는 현재 1만 명 내외(전국 인구 대비 0.1% 이하)로, 에티오피아 가톨릭 교회의 신자 수(인구 대비 0.6% 이상)보다 적고, 이탈리아계 에티오피아 신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신자 비율은 적으나, 학교·의료·구호 기관 등 사회·교육 분야에 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틴 전례를 따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자는 현재 1만 명 내외(전국 인구 대비 0.1% 이하)로, 에티오피아 가톨릭 교회의 신자 수(인구 대비 0.6% 이상)보다 적고, 이탈리아계 에티오피아 신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신자 비율은 적으나, 학교·의료·구호 기관 등 사회·교육 분야에 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티오피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

로마 가톨릭 교회는 13~18세기에 걸쳐 에티오피아에 여러 선교회를 파견했다. 이들 대부분은 비기독교인의 개종보다 기존 신자가 바티칸 성좌에 대해 충성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는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의미했기 때문에 선교회들의 시도는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다가 15세기 말 포르투갈의 신향로 개척 때 로마 가톨릭 교회와 에티오피아 교회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시작되었다. 16세기 중순에 에티오피아의 통치자들은 예수회의 포교활동을 허가했다. 그러나 17세기 초에 자 덴겔 황제와 수세뇨스 황제의 가톨릭 개종으로 인해 반발이 커

졌다. 우르바노 8세가 에티오피아 총대주교로 임명한 포르투갈 예수회 출신 알폰소 멘데스의 강압적 개종을 이유로, 1622년 수세뇨스의 아들 파실리데스 황제는 총대주교를 포함한 예수회를 추방하고 가톨릭 선교는 중단됐다. 전대 황제들의 개종으로 선교가 성공한 것처럼 보인 이 당시의 접촉은, 오히려 에티오피아 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접촉이 완전히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39년부터 주스틴 데 자코비스 몬시뇰, 그 뒤를 이어 켈레르모 마사이어 추기경이 지속적으로 로마 가톨릭 선교활동을 재개했다. 현재 에티오피아에 존재하는 로마 가톨릭 공동체는 주로 자코비스 몬시뇰과 마사이어 추기경의 정력적인 활동의 성과다.

1961년 동방 전례(Ge'ez 사용) 교회가 정식 가톨릭 자치 교회로 승격된 이후, 라틴 전례 교회도 꾸준히 분화, 성장하여 현재 1개 대목구와 1개 지목구로 구성돼 있다.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에 대한 토막상식

-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는 오리엔트 정교회 소속 종파 중 하나로 5세기 양성론 교회와 분리된 합성론 계열 교회다. 칼케돈 공의회(AD 451)에서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등은 예수가 신성과 인성이 구별된 두 본성을 지닌다고 보는 데 비해, 테와히도 정교회는 콥트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하나의 단일한 본성을 지녔다고 본다.
- 사도행전 8장에서 집사 필리포스에게 세례받았다고 하는 에티오피아 환관이 교회의 시초라고 한다.
- 콥트 정교회에서 나온 분파로 콥트 정교회를 수좌 교회로 여긴다.
- 구약 시대의 전통을 중요시하고 안식일을 토요일, 일요일 모두 지키는 관습이 있다. 신자들에게는 세례성사, 견진성사와 함께 할례도 시행한다.
- 초기 교회에서는 거의 정경으로 취급했으나 이후 타 종파에서는 대부분 위경으로 취급한 예복서, 희년서, 바룩의 나머지 편지(바룩 4서), 메카비안 등을 정경으로 인정한다.
- 아프리카에서 늘어나는 인구 수로 인해 영향력이 큰 거의 유일한 동방 교회 교파이기도 하다.+

※ 에티오피아의 종교 분포(2024년 기준) :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40%), 이슬람(30%), 개신교(20%), 천주교(1%, 에티오피아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포함)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 (2025년 6월~7월)

●강석철 ●강은영 ●강정아 ●강화정 ●고동현 ●고현수 ●고현주 ●곽순용 ●곽혜숙 ●구경모 ●권희백 ●김경준 ●김경희 ●김금재
●김기연 ●김대곤 ●김덕순 ●김동화 ●김명숙 ●김명신 ●김명희 ●김미현 ●김범준 ●김병희 ●김석주 ●김성권 ●김성중 ●김수미
●김수현 ●김영추 ●김영환 ●김윤순 ●김재영 ●김정연 ●김정임 ●김진숙 ●김진우 ●김태규 ●김태성 ●김태희 ●김해숙 ●김현경
●김현숙 ●김현준 ●김현호 ●김형주 ●김혜숙 ●김희수 ●나삼균 ●도성록 ●류연자 ●류지한 ●류혜선 ●문순자 ●박병윤 ●박성
●박소향 ●박수진 ●박언빈 ●박재우 ●박창희 ●박준옥 ●박향순 ●박혜숙 ●박화영 ●배광익 ●배보운 ●배소영 ●배창희 ●백영희
●사공일 ●서현동 ●서효리 ●성정인 ●성효인 ●손소영 ●손정애 ●손필숙 ●손현채 ●송미경 ●송보영 ●송재욱 ●신해경 ●심정현
●양기라 ●양영실 ●양창호 ●엄옥진 ●오세형 ●오소연 ●오승웅 ●오영신 ●위원량 ●유영희 ●윤영순 ●윤영찬 ●윤용식 ●윤창현
●이강득 ●이강림 ●이건창 ●이금희 ●이미순 ●이미용 ●이보경 ●이상현 ●이석재 ●이승현 ●이영희 ●이용순 ●이용애 ●이원석
●이일호 ●이장순 ●이재림 ●이재익 ●이정희 ●이종대 ●이종상 ●이주현 ●이준호 ●이중환 ●이지윤 ●이진수 ●이학천 ●이향희
●이현옥 ●이현창 ●이혜순 ●이혜연 ●이희우 ●임선영 ●임옥란 ●임진수 ●임태남 ●장민정 ●장선화 ●전대영 ●전명희 ●전성인
●전소연 ●전 숙 ●전유민 ●정수자 ●정영길 ●정영미 ●정은주 ●정진영 ●조경연 ●조덕순 ●조무건 ●조소연 ●조주연 ●조하영
●조현순 ●주현수 ●진수은 ●최경의 ●최두혁 ●최명옥 ●최영연 ●최영자 ●최종숙 ●하금태 ●한나진 ●허 근 ●허봉희 ●허순덕
●허영숙 ●홍성실 ●홍지원 ●황세희 ●황영희 ●황태운 ●황현지 ●진석실업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 (2025년 6월~7월)

●김경식 ●김원호 ●박우준 ●서상범 ●오창선 ●유경춘 ●이문주 ●임상무 ●정순택 ●조인기 ●최광희 ●최명근 ●최정훈 ●한정화
●홍근표 ●익명후원자

+ 국성회 후원 방법

1. CMS 신청

-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연락하셔서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 신청자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신청자 본인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월 출금액, 출금을 원하시는 날짜(1일/10일/25일)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와 은행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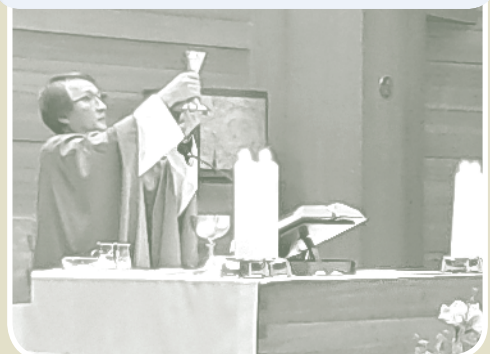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국민은행	364301-04-106412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 2025년 6월~7월
후원금 내역 : 9,850,000 원

2025년 10월 후원회 미사 알림



일시 : 2025년 10월 14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역 요셉빌딩 7층 경당(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89)

교통 : 지하철 1호선, 4호선 서울역 14번 출구 앞.
버스는 서울역환승센터, 남대문경찰서,
갈월동 버스정류장에서 10분 이내.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썩이 썩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 루카 12, 33~34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8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
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2-2637-7258)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2-2637-7258)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
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604-557810	요셉나눔재단법인
국민은행	364301-04-236621	요셉나눔재단법인

■ 위의 계좌 이외에 기존에 납입하고 계신 요셉의원 계좌도 유효합니다.

요셉의원 이전에 따른 환자 지원 프로그램 변경 안내



목욕서비스

이전 후 필요에 따라 운영 예정



이미용서비스

이전 후 프로그램 준비 중



옷나눔서비스

필요한 환자에게 별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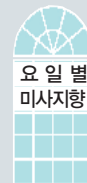
음악 치료 & 영화 포럼

별도 공지 때까지 중단

➡이외 기존 운영 프로그램은 별도 공지 때까지 중단됩니다.

미사 안내

요셉의원 7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요일별 미사지향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
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

“소중한 봉사 경험과 진료받은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진료받으며 느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